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호렙산 기도회

7월 14일 (금) 성찬식에서 떡을 떼며 40일간 뜨거운 기도의 여정 마무리

6월 5일부터 시작된 제35회 호렙산 기도회는 5일 뒤 40일간의 긴 여정이 마무리된다. 1989년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매년 40일간 진행되어온 호렙산 기도회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광림교회의 자랑이자 오랜 전통이다. 성도들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며, 오랜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자리 잡아왔다.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라”(Open Heaven's Gates with Prayer)(왕상 18:37)라는 주제로 진행된 호렙산 기도회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히스기야와 요나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말씀으로 호렙산 기도회의 포문을 열었다. 15일 차부터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함에 맞춰 호렙

산 기도회가 끝이 나는데 성도들의 40일간 여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길 소망한다고 했다.

매일 새벽 4시 45분에 시작되는 기도회에서 성도들은 호렙산 공동 기도 제목인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광림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으며, 각 가정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있다. 기도회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년부, 교회학교가 번갈아 가며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호렙산 기도회 기간 본당 로비에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땀뻑하게 채워진 기도의 벽이 세워졌다. 토요일마다 설치된 포토존에서는 장막을 형상화한 인디언 텐트 앞에서 자녀들의 사진 촬영이 이루어졌다. 지난 8일 토요일에는 기도회 후 본당 로비에서 제 10회 소망사진관을 운영하여 호렙산에 오른

성도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교회학교에서는 호렙산 기간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을 통해 10가지 보물스티커를 모으는 활동을 진행했다. 호렙산 마지막 토요일에는 기도회를 마친 후 본당 3층과 4층에서 참석한 아동 및 학생들에게 교육국과 교구 목사들의 안수기도가 있었다. 광림남교회에서는 호렙산 기도회 기간 중 성도들을 위한 특별 나눔 행사를 펼쳤다. 지난 6월 25일 새벽 광림남교회 남선교회는 사랑의 팔빙수 나눔 행사를 통해 무더위 속 호렙에 오른 성도들을 격려했다.



또 6.25를 기억하기 위한 건빵 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광림비전랜드에서는 호렙산 기도회 동안 매일 새벽 대성리 마을 주민들과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영상으로 호렙에 올랐다.

호렙산 기도회는 지교회인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광림서교회와 모스크바, 야마가타, 호찌민 등 해외 광림 미션센터 외 국내외 많은 선교지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광림의 권속들이 영상으로 동참하고 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문을 연 40일간의 호렙산 기도회는 이번 주 14일 금요일 성찬식 예배 후 끝이 난다. 이후에는 목회자 세미나와 교회학교 및 사랑부 여름 수련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 청년선교국 여름 교육 선교 등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 박희훈 기자

2 광림의 강단
절망과 실패로부터 벗어나라

3 광림 스토리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

4 하나님을 만나다
호렙산 기도회 간증

6 하나님을 만나다
호렙산 기도회 간증

7 믿음의 현장
건강강좌 시리즈(4)

8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절망과 실패로부터 벗어나라”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은 마 10:2~4, 막 3:16~19, 눅 6:13~16, 행 1:13에 나열되고 있는데, 네 곳에서 나열되는 제자들의 이름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등장하고, 다음으로 빌립, 바돌로매, 마태, 도마가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롯 유다가 등장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나열 순서에 대해 예수님과 친밀한 정도, 부르심의 순서, 신뢰받는 순서로 추측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 가장 앞선 사람이었으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 두고 고별설교를 하십니다. 성만찬을 베풀시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마 26:31)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가로막으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마 26:33)라고 결단하며 대답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결단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과 결단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첫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시며, 십자가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6~28)

예수님께 가장 신뢰를 받았던 제자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에게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구원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영광의 자리에 앉겠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인간적인 욕망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무너지며 위기가 찾아옵니다. 조정경기를 보면, 노를 젓는 사람들은 결승점을 등지고 일사분란하게 노를 젓습니다.



마태복음 26:31-35

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5.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결승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조타수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승점을 향해 노를 저어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조타수를 잘 보는 것입니다. 조타수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결승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히 12:2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조타수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십니다.

둘째, 기도 없이 맹세하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CEO인 로라벤스 존스가 ‘최고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른 곳에서 리더십을 배우려고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예수님의 리더십을 85가지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85가지 리더십 모두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리더십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바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는 것입

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도 기도로 시작하셨으며,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겹세마네 동산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도 없이 결단하였고, 그 결단은 금방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심은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힘을 얻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생각나는 대로 약속하고 결단해서는 안됩니다.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결단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학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셋째, 헌신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맡기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39),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거룩한 뜻을 자신의 욕심으로 막고자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아직 자기 목숨에 대한 사랑과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마 26:35)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고백에는 헌신이 결여되어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해야 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두고 있던 자기애와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새롭게 되자 그의 깨끗한 마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고, 그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

8월 26일(토) 오후 2시 장충체육관, PHOS:The Light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청년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을 기념하여 8월 26일(토) 오후 2시에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한국교회 청년들의 신앙 회복과 공동체 부흥을 위해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초교파 연합 집회이며, 김정석 목사(광림교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와 박성민 목사(한국 CCC 대표)가 공동대회장을 맡았고 박동찬 목사(일산광림교회)가 준비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포스(PHOS), 빛이다. 어둠에 빠진 청년들이 빛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자로 깨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다.

성령한국 청년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6월 23일 광림교회에서 설명회를 하고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는 1부 예배, 2부 설명회, 3부 오찬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공동대회장 박성민 목사는 "청년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1907년 청년 하디의 영적 각성이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듯이 이번 대회가 한국교회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소원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석 목사는 개회사에서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2013년 하디 선교사 110주년을 기념하면서 시작되었고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라며 "1903년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원산에서 평양으로, 한반도 전역으로 번져갔듯이, 120년이 지난 올해 장충체육관에서 1만 명의 초교파 청년들의 회개와 영적 각성이 새로운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 한국교회 청년들의 신앙 회복과 대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이 철 감독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하디 영적 각

성 110주년 집회를 마친 후에 지금까지 남겨진 유일한 열매가 성령한국 청년대회이며,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 청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주신 김정석 목사님과 광림교회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라고 인사했다.

이어진 2부 설명회에서 준비위원장인 박동찬 목사는 대회 취지를 밝히고 단계별 로드맵에 관해서 설명했다. 박 목사는 "물이 없으면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하고, 올해가 7번째 대회인데 이렇게 계속 이어가다 보면 반드시 부흥의 물결이 터질 것을 믿는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들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꿈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PHOS>의 스펠링을 기준으로 하여 4가지 세션으로 당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동안 말씀, 기도, 찬양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집회는 Presence(임재)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며, 두 번째 집회는 Holiness(거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한다. 세 번째 집회는 Overflow(선교)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땅끝까지 빛을 비출 것을 다짐하며, 마지막 집회는 Sending(파송)으로 성령과 함께 세상의 빛으

로 파송 받는다.

본 대회는 디아코니아 '음악카세트의 라이브 뮤직&토크쇼와 Shake City의 오프닝 위십, 그리고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의 개회사로 문을 열며, 김명선 목사(오륜교회)가 이끄는 성령한국 연합찬양팀 The Light의 찬양 후 박동찬 목사의 설교로 1부가 진행된다.

2부는 피아워십의 찬양과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가 말씀을 전하며, 3부는 이우람 목사(온누리교회)가 찬양을 드린 후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가 메시지를 전한다. 마지막 4부에서는 Annabel Soh(시티 하베스트 교회)의 찬양 이후 김정석 목사(광림교회)의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며, 이 철 감독 회장의 블레싱과 정용식 목사(유다지파) 셀러브레이션으로 대회의 문을 닫는다.

준비위에서는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 홈페이지(www.holyspiritkorea.com)를 개설하고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중순부터는 한 달간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굿즈를 선물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향후 일정으로 오는 7월 18일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신길감리교회에서 진행되며, 본 대회를 마친 뒤 한국교회 청년들의 신앙 회복과 지역교회의 청년 공동체, 캠퍼스 선교단체, 군인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청년목회자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지원할 것임을 알렸다.

김정석 목사는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에 참가하는 1만 명의 청년들 모두가 빛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어두운 곳을 환히 밝히는 빛의 사자로 다시 일어나서 파송 받는 시간이 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포토 뉴스



호렘산 기도회
제35회 호렘산 기도회가
6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 설명회
6월 23일 광림교회에서
설명회가 있었다.



청장년부 <처치크린데이>
6월 24일 호렘산 기도회 후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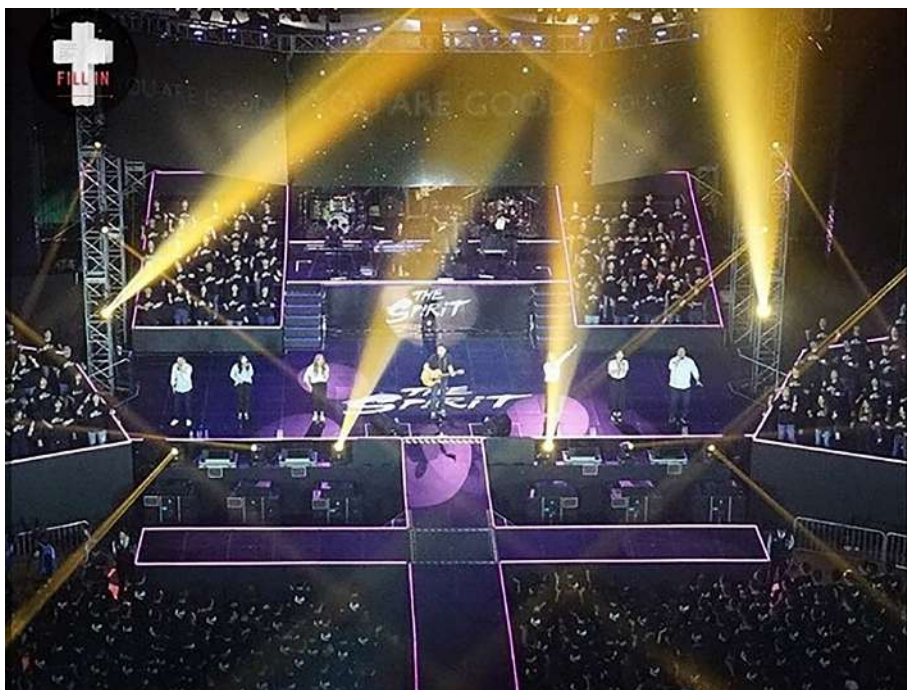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협회 의약품 전달식
6월 29일 교회 방문 및
의료선교위원회 의약품을 전달했다.

담임목사 동정



6/5~ 호렘산 기도회
6/23 성령한국 청년대회 설명회
6/29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협회
의약품 전달식
7/6 명지병원 비전축복기도회
강남지방 여성교회 계삭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제35회 호렙산 기도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믿음

저는 광림교회를 수년째 다니고 있지만 호렙산 새벽기도회의 시작과 마지막 날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할 날은 다가오는데 전셋집 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쥐여 해서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어떻게든 해결하려 할수록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4개월간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집주인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아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함께 직장인 속회에서 만난 권사님,

집사님께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며 말씀해 주셨고, 함께 호렙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응답받은 일들이 많았지만, 정해진 날짜가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매일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침묵하라. 인간의 걱정을 멈춰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는 세 가지 말씀의 설교를 듣고 '아, 오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오전 일찍 부동산에서 집이 계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기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법정 소송도 갈 수 있어 절망하던

때에 계약된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했는데, 계약이 늦어지면서 대출을 받아 이자·수수료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원래 들어가려던 곳보다 더 크고 저희 가정에 딱 맞는 곳으로 집을 계약하게 돼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괜히 나 혼자 세상의 걱정으로 마음을 줄였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또 집 문제로 정신이 없던 중, 평소 옮기고 싶던 직장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아 옮기게 됐는데, 바로 다음날 현 직장에서 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만약 하루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면 집

때문에 대출을 받은 상황에 직장까지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은혜롭게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직장으로 저를 먼저 인도해 주셨고, 계획보다 훨씬 맞는 처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으니 '모든 문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는 오로지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응답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남은 호렙산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호렙에 오르는 발걸음이 너무 즐겁고 은혜롭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김지수 성도(26교구)

공활함으로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2017년도 작은아들과 주말에 호렙산 기도회에 가기로 약속하고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버스 타는 곳까지 약 13~15분 거리를 걸으며 기도회에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로 매일 아침 호렙산 기도회에 참석하기는 힘들었는데, 작은아들은 그날 이후 3년간 매일 호렙산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학교에 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잠이 많아 주말에도 일어나기 힘들었으나 아들이 주말 새벽마다 깨워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호

렙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번 35회 호렙산 기도회는 저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거리가 멀어 자차로 움직여야 했는데, 저희 차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계속 지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의 시동조차 걸리지 않아 정비소에 맡겼더니 계속 수리가 필요해서 새 차를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새 차의 가격을 알아보았지만, 저희 형편으로는 구입하기 힘든 가격이었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방문한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차와 디

자인, 가격, 출고 날짜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저희가 마음에 들어 했던 차를 다시 보여주었는데,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알아봐 주셨고, 출고도 1주일 만에 나올 수 있도록 계약을 도와주었습니다. 게다가 중고차 가격도 시세보다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2주 차까지 마친 후, 매장에서 새 자동차를 받아 다음날 주일 교회에 오는데 온통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

백뿐이었습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아 포기할 수 밖에 없던 저희를 위해 새로운 자동차를 통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고 공활히 여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순간 우리를 채워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임은영 집사(6교구)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5월 13일,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3월에 계약 연장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원래 알던 은행 채무 외에 압류 1건과 가압류 1건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발견하였다. 바로 해결하겠다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급매로 집을 내놓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시작되었다.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압류가 또 들어올지, 경매에 잡히지 않는 건 아닌지 불안한 상황에 제3의 채무자까지 나서서 집 팔리기를 기다린다고 하니, 나는 위험한 매물에 전세금이 잡혀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된 것이다. 그 와중에 집을 사려는 매수인이 나서도 집주인은 매매가를 턱없이 높게 불러서 번

번이 계약이 무산되었다. 불안한 마음에 내가 매수하겠다고 하면 매매가를 더 높이 올려놓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뿐이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라는 찬양가사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마침 시작되는 호렙산 기도회! 무릎으로 올라가 보자는 마음으로 호렙산에 올랐다. 호렙산 3일차가 되었다. 우리 집을 사고 싶어 했던 매수인과 드디어 집값 조정이 되어 계약을 한다고 했다. 그날 오후 2시에 나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이 그대로임을 확인하였고, 4시에 그 매수인이 집주인과 계약한다 했는데, 다시 부동산에

서 연락이 왔다. 놀랍게도 2시간 사이에 집주인의 건강 보험료 연체로 압류가 들어와서 매매계약이 결렬되었다는 것이다. 소식을 듣고 나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결국 내가 집을 매수하게 되었다. 지난 3달 동안 해보려고 해도 안 된 계약이 호렙산 3일차에 응답 된 것이다.

계약금을 치른 후 또 카드회사 가압류가 들어와서 모두 압류 2건, 가압류 2건, 은행 채무가 있었고, 언제 또 압류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계약 5일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압류, 가압류, 은행 채무 등 차례로 내가 송금하고 완납증명을 하나씩 받아 가며 압류를 풀고, 법무사는 소유권이

전등기 수속을 하고, 혹시 또 생길 문제에 대비해서 오후 6시까지 기다렸다가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잔금이 처리됐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집에서 살라 하셨네. 주님이 다 해결하여 주셨네.”
연약하고 부족한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네. 감사가 넘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최휘숙 집사(광림남교회)

3개월 동안 꼼짝말고 누워있어야 합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 8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알려왔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22주차에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며느리에게 뱃속에서 커져가는 태아의 무게를 버티는 것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궁경부 길이가 3cm가 정상인데 0.8cm로 극히 위험한 상태라 조산 혹은 임신부, 태아도 위험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주치의는 “임신한 며느리도 태아도 위험하니 3개월은 누워있어야만 합니다”라는 두려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머리 속이 하얗게 되고 난감했습니다.

먼저 아들 부부에게 시편 127:3 “자식은 여

호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28:3 “네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건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를 묵상하며 ‘식탁에 아들 가족 셋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늘 하던 대로 남편이 1부 온라인 새벽 예배 후 기도문을 작성하여 식탁에 올려놓으면, 저는 2부 온라인 새벽 예배 후 기도문을 보고 중보하며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23주차 2월 17일, 당장 개복을 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었었는데 주치의는 1주일 더 기다려보라고 하며 화

성 동탄 병원의 국내 최고 자궁보합수술 의사를 연결해 수술 날짜까지 잡아주었습니다.

수술 후 3주째, 자궁경부 길이가 2.6cm로 아주 양호한 상태이나 태아가 성장하니 계속 누워있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두의 중보 기도는 계속되었고 감사하게 36주차, 만삭을 한 달 앞두고 수술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2.75kg여서 아기와 며느리가 함께 퇴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완벽 자재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출생 55일째인 손자를

보고 왔습니다.

방긋 웃으며 건강하게 커가는 아이는 축복의 씨앗이요, 은혜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매순간 롤러코스터 같은 반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완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호렙산에 개근하며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자비와 은혜를 구할 뿐임을. 어렵고 두려울 때,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느낄 때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백문화 권사(14교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왕상 18:37)



믿음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2년 전 재무부서에서 사업개발 부서로 이동하면서 바로 팀장으로 진급했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개발 업무는 제 적성과 성향과는 너무 맞지 않았고, 팀원 관리, 리더십의 고민이 깊어져 매일 우울했습니다. 낮아진 자존감, 우울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부서 이동의 의사를 회사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 없이 제 소견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중 제가 팀장이 된 지 만 2년 되

는 6월 21일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몽한 지 만2년 후에 바로의 부름을 받은 사건이 만2년의 저의 시간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연이 아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제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분의 이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올해 6월 21일을 맞이했고 그날 아침도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라는 기대 반 의심 반의 심정으로 출근했습니다.

별다른 일 없이 일상을 보내던 중 상사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업개발의 수장이 되는 게 너의 목표냐?"고 묻는 상

사의 질문에 전 솔직하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다시 재무 분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상사의 눈치와 성공에 대한 헛된 믿음을 다 떨쳐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다음 기도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연말까지 좋은 자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팀장 자리는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저의 기도가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 자신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음을 알았

지만, 백성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걱정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보다 눈앞의 잇속에 눈멀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한다고 깨닫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과 비전을 움켜쥐고 쫓기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편을 택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제 기도 제목입니다.

김성현 집사(8교구)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저는 광림교회를 등록한 지 2달이 좀 넘은 성도입니다. 생각해 보면 광림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몇 년 전 지인의 일로 신사동을 방문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광림교회 앞에 있어서 '광림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해 '아, 광림교회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청담동으로 이사한 후 집 앞에 부동산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장님이 저희 집 앞으로 이사 와서 저를 기억하고 알아봐 주셔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광림교회에 자진해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갑자기 불어닥친 어려운 경제 문제로 심신이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다급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6년 넘게 예배 생활을 안 하고 세상 속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깨닫고 눈물로 며칠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에 주님이 '후회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 호렘산 기도회를 알게 되고 고민하

며 기도하던 중 '기도하고 훈련하는 자가 복되도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호렘산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에 저는 때때로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들은 음성이 그냥 제 생각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알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몇 초도 안 돼서 듣고 있던 라디오에서 '나의 음성이니 두려워 하지 말라'는 가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번에는 제 생각 밖의 매체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로, 또 호렘산 기도회로 이끌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이주희 성도(19교구)



상담선교위원회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찾아
복음의 씨앗을 되새기다

광림교회 상담선교위원회는 6.25 발생 73주년을 맞아,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일찍이 이 나라를 복음으로 인도하신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합정역 앞)을 찾아 6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곳은 구한말부터 우리 민족의 선교, 학교, 병원, 대한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외국인 선교사와 가족 145명이 안장된 곳이다. 예배를 통해 ‘100여 년 전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오셨던 땅 끝(행 1:8)이 바로 여기’임을 생각하며, 묘역 순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맺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양화진에 모신 선교사님들 중에는 특별히 감리교 출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근대 교육과 감리교회 초석을 세우시고 순교하신 아펜젤러 목사님, 원산·평양 부흥 운동의 주역이신 하디 목사님, 교육선교사님들(캠벨 선교사님-배화학당, 아펜젤러·벅거 선교사님-배재학당, 스크랜턴 대부인-이화학당, 켄트릭 선교사님-송도 학교 교사 등)과 군목제도 창설(쇼 선교사님과 6.25 참전 중 전사한 아들 해밀턴 쇼), 결핵 의료선교(로제타 홀 선교사님, 아들 셔우드 홀 등 가족), 독립운동(헬버트 박사님, 병



커 선교사님) 등 대부분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몇 대에 걸친 분들의 가족 묘지가 안장되어 있었다. 양화진 홀에서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주제로 선교사님들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글 성경’이라는 동영상도 소개하였다.

1800년대 말 한국인들은 만주와 일본에서 기독교를 먼저 접하고, 해외에서 우리말로 성경도 번역·출판하였는데, 일본에서 활동하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1884년 6월에 공식적인 개신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이미 우리말 성경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

이후에도 아펜젤러, 레이놀즈 선교사님 등의 한글 성경 번역으로, 성경을 통한 한국 선교가 꽃을 피울 수 있었다는 소개내용에,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 귀한 시간이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 날 하루에만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묘원 방문을 예약해서 많이 혼잡하다는 안내위원 말씀들을 들으며, 이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된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재은 장로(상담선교위원장)

목회현장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



서정일 목사(광림아트센터)

광림아트센터에 사역하면서 직함이 두개가 되었다. 목사와 관장이다. 영어로 목사는 ‘Reverend’ 혹은 정식 신학교를 나와 목회하는 이들을 총칭하여 ‘Pastor’ 라고 한다. 광림아트센터에서 부여 받은 관장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COO (Chief Operating Officer)라고 정했다. 한글로는 최고운영책임자이다. 많은 분들이 COO하면 뭔가 근사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최고’라는 단어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더 비중이 있는 것은 운영 책임자이다. 광림아트센터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일하는 상대의 대부분은 일반단체, 공연 기획사들이 많다. 그러므로 계약과 미팅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고려하며 많은 부분이 돈과 연관이 있고, 최종적인 운영의 결정, 판단과 실행은 곧 책임과 연관이 있어 여간 어렵지 않다. 모든 직함에는 의무(책임)와 권리가 있다.

저의 목사 안수 과정 때는 감리교에 인턴 제도가 없었기에 무조건 3년 동안 단독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다. 하안동에서 3년, 춘천에서 1년 단독목회를 걸쳐 2002년 감리교 동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목회 3년 동안 과정(매년 시험과 논문, 구술 면접)을 걸쳐 받게 되는 안수와 그 전날은 무척 기쁘기도 하지만 긴장되고 두렵기도 했다.

그때 저는 순진하게 ‘이제 내일 목사 안수를 받으면 설교 원고도 술술 풀리고, 강단에서 떨지 않고 유창하게 설교와 기도를 잘 하게 되겠지. 목사님들의 손이 내 머리에 얹어져 기도하면 뭔가 뜨거운 것?’이 나를 지배하며 특별한 체험이 있었지?라며 큰 기대감으로 안수를 받았다. 안수례 중에 땀은 흘렸지만 뭔가 뜨거운 감흥이 없어 ‘이게 아닌데... 아~ 내일 새벽기도부터는 내 기대에 부응하는 뭔가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안수 받은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는 예전보다 더 더듬거리고, 기도도 생각한 것만큼 잘 되지 않았다. 그날 새벽기도를 하며 ‘하나님, 이 안수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쭙어도 보았다.

그리고 묵상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 속에 ‘이봐,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아.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임을 망각하면 타락한다. 왕의 권위만 생각한 사울은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다윗도 왕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했을 때 이웃 집 아내를 탐하는 실수를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칭함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늘 기억할 때 한결같을 수 있다.

의료선교위원회
건강강좌 시리즈 ④

바디바이블과 줄기세포 치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 139:16)라고 다윗은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3천년 전 다윗이 보았던 그 주의 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류는 오랫동안 이 주의 책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다가 최근 이것이 우리 몸의 세포 속 염색사 안에 존재하는 염기 서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치료 원리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넣어주신 인간 창조의 청사진인 염기 서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면 성경을 보면 되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고 싶다면 우리 몸 안의 구성구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살아있는 성경책(바디바이블)이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호모 비블리쿠스(Homo Biblicus)’ ‘성경적인 인간’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개개인 안에 ‘항상성’(Homeostasis)라는 성실한 의사를 넣어주셨습니다. 이 ‘항상성’은 일생동안 큰 어려움 없이 스스로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1초도 쉽 없이 성실하게 몸을 치료하고 있는데, 이 때 사용되는 고귀한 약이 줄기세

포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해주셨지요.

임신 초기에 전능한 능력을 가졌던 배아줄기세포들이 겸손히 성체줄기세포로 바뀌어, 손상되거나 병든 세포들이 있는 조직에 직접 찾아가서, 자신을 희생하여 병든 조직을 회복시키는 치료 방법은 극히 동일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몸 안에 노화 속도와 재생 속도가 동일하여 건강이 잘 유지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재생속도가 떨어져 노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노화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탈모, 관절염, 비만, 당뇨, 간경

화, 시력저하, 파킨슨, 치매 등 수많은 병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난치병에 속하여, 세상 약으로는 회복이 어려운데,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자가 줄기세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가 줄기세포’란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진 줄기세포로, 나의 것을 이용하여 내 몸을 치료하기에, 창조의 섭리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몸의 ‘항상성’에 재생 속도와 힘을 더해주는 아주 큰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우 장로(의료선교위원회)



청년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PHOS: THE LIGHT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
08.26(토) 2:00 PM 장충체육관

· 말씀 ·



박동찬 목사
일산광림교회



홍민기 목사
라이트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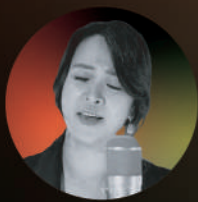


황덕영 목사
새중앙교회



김정석 목사
광림교회

· 찬양 ·



김명선 목사
램넌트워십



이우람 목사
홀리임팩트



정용식 목사
유다지파



Annabel Soh
City Harvest Church



피아워십

· 오프닝 ·



디아코니아



Shake City

with 성령한국 연합찬양팀 'The Light'

@holyspiritkorea

www.holyspiritkorea.com

